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동의 체중 및 식습관 비교

최윤정 · 민혜선[†]

한남대학교 생명나노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Comparison of Children's Body Weights and Eating Habits by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Yun-Jung Choe, Hyesun M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Bio-Nano Science,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Effec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been known to be associated with children's health practices including dietary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ildren's body weights and eating habits by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Data were collected at school ($N=396$; 4th and 5th grade student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n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Parenting attitudes were categorized as 1 of 4 parenting attitudes (overprotec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and neglectful) using affection and control median cut points. Children's body weights, frequency of breakfast, eating out and fastfood, and physical activity were compared by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Children's body weights were related with mother's employment status ($p < 0.05$) and parenting attitudes ($p < 0.01$). Children of unemployed mothers we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Children of neglectful mothers ($p < 0.01$) were more likely to be underweight, compared with children of mothers with other parenting attitudes. Since, unfortunately, the number of children of neglectful mothers was very limited in this study, we could hardly assess eating habits of children of neglectful mothers. Children of authoritarian mothers ate breakfast more regularly ($p < 0.05$), but ate snacks less regularly ($p < 0.01$). Children of democratic mothers ate fastfood less frequently ($p < 0.01$) and ate snacks more regularly ($p < 0.01$). Meanwhile, children of overprotective mothers ate breakfast less regularly ($p < 0.05$) and ate out less frequently ($p < 0.01$). However,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were not related to children's physical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maternal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was associated with healthy eating habits including regular snack time and less fastfood. On the other hand, the maternal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was associated with high risk of children's underweight. Understanding the mechanism through which parenting attitude is related with underweight risk and healthy eating habits may lead to the development of better intervention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1): 77-86, 2009)

KEY WORDS : maternal parenting attitude · body weight · eating habits · activity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서구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장기 아동의 체중과

다 및 비만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Kang 등 1997; Kim & Moon 2001) 이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고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각종 질환의 유병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비만의 예방과 조기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pstein 등 1985; Kim & Kim 1994). 아동의 과체중 위험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이외에 (Farooqi & O'Rahilly 2002), 아동이 처해있는 가정환경이나 학교의 여건이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을 유발하는 환경이거나 또는 활발한 활동을 제한하는 환경일 때 아동이 비만해지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Davison & Birch 2001).

접수일: 2009년 1월 11일 접수

채택일: 2009년 2월 19일 채택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Hannam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8.

[†]Corresponding author: Hyesun M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nam University, 461-6 Jeonmin-dong, Yuseong-gu, Daejeon 305-811, Korea

Tel: (042) 629-8792, Fax: (042) 629-8789

E-mail: hsmin@hnu.kr

아동의 건강관련 습관은 가정에서 형성되며 부모가 행하는 식행동과 운동습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Fogelholm 등 1999; Davison & Birch 2001).

부모와 자녀의식이섭취 패턴과 식품에 대한 기호가 유사한 이유는 맛에 대한 감각이나 고열량 식품에 대한 기호 및 포만 신호 등이 부모-자녀 간에 유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유전적 요인도 아동기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부모의 영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éruisse 등 1988; Benton 2004). 아동의 식습관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받게 되는데, 부모의 영양지식, 자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부모의 식행동 모델 제시 및 자녀 양육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부모가 영향을 주게 된다(Laskarzewski 등 1980; Vauthier 등 1996).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ecker (1964)는 양육태도는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주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행동 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도 학자들 간에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Schaefer (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 모형에서 양육태도를 크게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자율적이면 자녀를 민주적이고 협동적으로 대하며 자녀에게 자유, 수용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적대·자율적인 태도는 방임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며 무관심, 태만, 냉담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녀에게 애정·통제적인 태도는 과잉보호적 양육태도로서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만 동시에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아동의 행동범주를 부모가 결정하고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소유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하며, 적대·통제적인 태도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 처벌하거나 심리적인 체벌, 요구 반복적,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Schaefer (1959)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기초적인 성격과 성장의 틀이 결정되며 부모-자녀간의 애착형성과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등은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사회적 발달 등 모든 측면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Lee & Koh 1998).

Arredondo 등 (2006)이 라틴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식행동과 비만위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가 식생활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긍정적인 강화 또는 충고를 할 때 아동의 식행동과 생활습관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가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을 나타냈으므로 덜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건강 생활습관과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Dennison 등 (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아동의 식품 섭취량과 활동량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경우 아동의 건강 관련 습관이 더 양호하였다. 즉, TV 시청 등과 같이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이 많거나 열량 섭취량이 과다할 때 이를 모니터링하여 자녀에게 충고하였을 때 자녀의 활동량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에 이로운 간식을 더 선택하였다. 반면에 자녀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형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적이고 매우 엄격할 때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비만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Birch & Fisher 1998; Carper 등 2000; Fisher & Birch 2000).

가족은 동일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가족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행동태도를 가지게 되며,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의 경우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Nam 2003).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지적, 정서적 특성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식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주부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가족 전체의 식품섭취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m (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 등이 아동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행동은 아동의 건강, 성격, 인지능력, 과잉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식행동과 식습관 형성에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크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Nam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식습관 형성과 성장과정에 미치는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관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동의 식습관과 체중을 비교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좋은 식습관 형성과 정상체중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 총 6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에 실시하였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설문지의 수거가 가능하였던 39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본인이 설문지에 직접기록하게 하는 자기기록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 아동의 식습관 및 활동시간,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조사하였다.

1) 신체계측 및 비만도 산출

학교에서 2006년에 측정된 아동들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BMI(체질량지수, kg/m²)를 기준으로 체중을 분류하였으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남녀 연령별 체질량지수 성장도표(2007 CDC BMI-for-age growth chart)를 이용하여 아동의 BMI가 5 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 5 백분위수와 85 백분위수 사이를 '정상체중', 85 백분위수 이상을 '체중과다' 로 분류하였다.

2) 아동의 식습관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2000; Lim 2000)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식습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아침식사 빈도, 외식 빈도, 외식에서 자주 이용하는 음식의 종류, 간식시간의 규칙성,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간식 식습관을 조사할 목적으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간식을 중심으로 간식을 8가지로 분류하여 하루 동안의 식품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3) 아동의 활동 · 비활동 시간 조사

아동의 신체활동 정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활동시간과 비활동시간을 조사하였다. 활동시간으로는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횟수를 조사하였으며, 비활동 시간으로는 주로 아동이 앉아서 하는 활동에 속하는 TV시청, 컴퓨터 사용, 수면 및 방과 후 공부와 독서에 소비한 시간을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때, TV시청과 컴퓨터 사용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가정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각 요일 분류별로 활동 및 비활동에 보

내는 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수거한 후 각 활동별로 하루 평균 활동시간으로 환산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 측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aefer (1959)의 양육태도를 기초로 Jung (1989)이 제작한 가정환경진단검사의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수정하여 재구성한 설문지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양육행동특성 측정도구는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서, 질문지 내용은 '어머니는 되도록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다' 등의 통제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 '어머니는 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 혼자 힘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게 격려해 주신다' 등의 자율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할 때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등의 애정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 '어머니는 내가 잘 한일이 있어도 칭찬해주시는 일이 없다' 등의 적대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 8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으며 질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양육태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태도점수와 자율-통제적 태도점수를 구해서 이원화한 후 Table 1과 같이 조합하여 네 가지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이 때 기준 점수는 중앙값을 이용하였으며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위점수와 하위점수로 분류하여 양육태도유형 분류에 적용하였다. 즉, 애정 · 자율적이면 민주적 양육태도, 적대 · 자율적이면 방임적 양육태도, 애정 · 통제적이면 과잉보호적 양육태도, 적대 · 통제적이면 권위적 양육태도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일반 사항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는 χ^2 -test로 비교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활동시간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Table 1. A two-dimensional classification of parenting attitudes

Affection	Control	
	High	Low
High	Overprotective	Democratic
Low	Authoritarian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s were categorized to overprotec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and neglectful using affection and control median cut points.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아동의 체중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과 같았다. 초등학교 4, 5학년의 조사대상자 총 396명 가운데 정상체중 아동이 190명 (48.0%)이었으며, 저체중 아동이 120명 (30.3%)이었는데 이들 중 18명 (4.6%)은 ‘아주 마름’, 102명 (25.8%)은 ‘마름’에 속하였다. 체중과다 아동은 86명 (21.7%)이었으며 이들 중 50명 (12.6%)은 ‘과체중’, 36명 (9.1%)은 비만이였다. 어머니의 연령층은 35~39세가 153명 (4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44세가 125명 (37.8%)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고용상태는 전업주부가 116명 (34.7%), ‘전일제’ 직업이 128명 (38.3%), ‘시간제’ 직업이 90명 (26.9%)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유형은 민주적 유형이 282명 (71.2%)으로 가장 많았고, 권위적 유형은 60명 (15.2%), 방임적 28명 (7.1%), 과보호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396)

Characteristic	n (%)
Sex	
Boy	183 (46.3)
Girl	213 (53.7)
Grade	
4 th	171 (43.7)
5 th	225 (56.8)
Obesity by BMI¹⁾	
Underweight	120 (30.3)
Normal	190 (48.0)
Overweight	86 (21.7)
Mother's Age (yrs)	
≤ 34	37 (11.1)
35 – 39	153 (45.8)
40 – 44	125 (37.4)
≥ 45	19 (5.7)
Mother's employment status	
Full time	128 (38.4)
Part time	90 (26.9)
Unemployed	116 (34.7)
Mother's parenting attitude	
Overprotective	26 (6.6)
Authoritarian	60 (15.2)
Democratic	282 (71.2)
Neglectful	28 (7.1)

1) Body weights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 percentile of the sex-specific BMI for age growth charts: underweight (BMI < 5th percentile), normal weight (5th percentile < BMI ≤ 85th percentile), overweight (85th percentile < BMI)

유형 26명 (6.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어머니의 연령 분포별로 아동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Table 3). 그러나 어머니의 고용상태에 따라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체중과다인 아동의 비율이 높았고, 어머니가 시간제 직업을 가진 경우 저체중아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05) (Table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아동의 체중을 비교한 결과,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67.9%로 가장 높았고 ‘민주적’일 때 25.5%로 가장 낮았으며(p < 0.01),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상관없이 유사했다(Table 3).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식습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아동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침식사 빈도, 외식 빈도, 외식에 자주 이용하는 음식, 간식의 규칙성 및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를 비교하였다(Table 4).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침식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민주적’일 때 아동들이 아침식사 빈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인 아동들의 아침식사 빈도가 다른 양육태도 유형보다 비교적 낮았다(p < 0.05).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외식횟수를 비교하였다(Table 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 유형일 때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민주적’ 양육태도 순으로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 때 외식의 횟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

Table 3. Children's body weight according to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parenting attitude

Mother's characteristic	Children's obesity index			χ ²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Age (yrs)				
≤ 34	11 (29.7) ¹⁾	19 (51.4)	7 (18.9)	3.82
35 – 39	40 (26.1)	80 (52.3)	33 (21.6)	
40 ~ 44	36 (28.8)	58 (46.4)	31 (24.8)	
≥ 45	3 (15.8)	13 (68.4)	3 (15.8)	
Employment status				
Full-time	29 (22.7)	71 (55.4)	28 (21.9)	10.88*
Part-time	31 (34.4)	47 (52.2)	12 (13.3)	
Unemployed	30 (25.9)	51 (44.0)	35 (30.1)	
Parenting attitude				
Overprotective	9 (34.6)	12 (46.2)	5 (19.2)	22.55**
Authoritarian	20 (33.3)	29 (48.3)	11 (18.3)	
Democratic	72 (25.5)	143 (50.7)	67 (23.8)	
Neglectful	19 (67.9)	6 (21.4)	3 (10.7)	

1) N (%)

*: p < 0.05, **: p < 0.01

Table 4. Comparison of children's eating habits according to maternal parenting attitude

	Overprotec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Neglectful	χ^2
Frequency of breakfast					
≥ 6 times / week	15 (57.7) ¹⁾	47 (78.8)	197 (69.9)	7 (63.6)	17.45*
3 – 5 times/week	3 (11.5)	7 (11.7)	48 (17.0)	3 (27.3)	
1 – 2 times/week	4 (15.4)	1 (1.7)	26 (9.2)	0 (0.0)	
Never	4 (15.4)	5 (8.3)	11 (3.9)	1 (9.1)	
Total	26 (100.0)	60 (100.0)	280 (100.0)	11 (100.0)	
Frequency of eating out					
≥ 5 times/week	0 (0.0)	1 (1.7)	2 (0.7)	1 (9.1)	22.52**
3 – 4 times/week	3 (11.5)	2 (3.3)	16 (5.7)	3 (27.3)	
1 – 2 times/week	6 (23.1)	22 (36.7)	120 (42.6)	2 (18.2)	
Never	17 (65.4)	35 (58.3)	144 (51.1)	5 (45.5)	
Total	26 (100.0)	60 (100.0)	280 (100.0)	11 (100.0)	
Favorite food for eating out					
Korean	13 (52.0)	18 (30.5)	130 (47.1)	5 (45.5)	21.40
Western style	1 (4.0)	7 (11.9)	40 (14.5)	0 (0.0)	
Japanese	3 (12.0)	2 (3.4)	14 (5.1)	0 (0.0)	
Chinese	0 (0.0)	6 (10.2)	18 (6.5)	1 (9.1)	
Fastfood	7 (28.0)	20 (33.9)	49 (17.8)	3 (27.3)	
Food made from flour	1 (4.0)	6 (10.2)	25 (9.1)	2 (18.2)	
Total	25 (100.0)	59 (100.0)	276 (100.0)	11 (100.0)	
Regular snack time					
Always	7 (26.9)	11 (18.6)	66 (23.6)	0 (0.0)	18.09**
Occasionally	8 (30.8)	18 (30.5)	136 (48.6)	5 (45.5)	
Never	11 (42.3)	30 (50.9)	78 (27.9)	6 (54.6)	
Total	26 (100.0)	59 (100.0)	280 (100.0)	11 (100.0)	
Frequency of fastfood					
≥ 3 times/week	2 (7.7)	1 (1.7)	3 (1.1)	0 (0.0)	23.73**
Twice/week	3 (11.5)	11 (18.3)	15 (5.3)	3 (27.3)	
Once/week	10 (38.5)	25 (41.7)	137 (48.6)	4 (36.4)	
Never	11 (42.3)	23 (38.3)	127 (45.0)	4 (36.4)	
Total	26 (100.0)	60 (100.0)	280 (100.0)	11 (100.0)	

1) N (%)

*: $p < 0.05$, **: $p < 0.01$

다($p < 0.01$).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방임적’ 유형일 때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외식의 횟수가 높은 경향이었는데, ‘방임적’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가 아동에게 무관심하고 애정이 부족하므로 식사를 가정에서 준비하지 않고 간편하게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외식의 종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외식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음식은 한식과 패스트푸드였다(Table 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간식섭취의 규칙성을 조사한 결과(Table 4), 분량과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간식을 섭취하는 아동은 어머니가 ‘과보호’ 또는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비교적 높았다($p < 0.01$). 이와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 일 때 아동의 간식섭취가 대체로

불규칙적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 조사에서(Table 4) 패스트푸드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는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가 45.0%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2~3회 이상으로 자주 섭취하는 경우도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가장 낮아 민주적인 양육태도일 때 자녀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낮았다($p < 0.01$).

전체 조사대상 아동들이 섭취하고 있는 간식의 하루 평균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Table 5). 아동들은 ① 과일·과일주스 ② 분식류(라면, 김밥, 떡볶이) ③ 과자·스낵류 ④ 닭꼬치, 오뎅, 튀김, 핫도그 ⑤ 빵·케이크 ⑥ 아이스크림 ⑦ 청량음료 ⑧ 캔디류 순서로 간식을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Table 5). 따라서 과일·과일주스, 분식류(라면, 김밥, 떡볶이) 및

과자·스낵류는 아동들이 가장 즐겨먹는 간식이었으며 캔디류는 섭취빈도가 가장 낮은 간식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간식 중 과자, 빵, 캔디,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분식류, 과일과 과일주스의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닭꼬치·오징어·튀김·핫도그의 하루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p < 0.01$), 다른 양육태도 유형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활동 시간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활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동의 활동시간과 비활동 시간을 조사하였다. 활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30분 이상의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운동의 횟수를 조사하였으며, 비활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V 시청, 컴퓨터 사용, 독서·공부, 수면 시간을 조사하였다(Table 6).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들은 대체로 1주일에 평균 1.7~2.5 회 운동을 하고 있었

Table 5. Children's daily intake frequency of snack according to maternal parenting attitude

Snacks	Frequency	Overprotec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Neglectful	χ^2
Fruits · fruit juice	≥ 4 times	5 (20.0) ¹⁾	8 (14.3)	36 (13.0)	0 (0.0)	13.09
	2 - 3 times	4 (16.0)	10 (17.9)	80 (29.0)	5 (50.0)	
	Once	9 (36.0)	20 (35.7)	108 (39.1)	2 (20.0)	
	Never	7 (28.0)	18 (32.1)	52 (18.8)	3 (30.0)	
	Total	25 (100.0)	56 (100.0)	276 (100.0)	10 (100.0)	
Instant noodles	≥ 4 times	4 (15.4)	5 (8.3)	15 (5.4)	1 (10.0)	5.82
	2 - 3 times	4 (15.4)	12 (20.0)	49 (17.6)	1 (10.0)	
	Once	13 (50.0)	29 (48.3)	138 (49.6)	6 (60.0)	
	Never	5 (19.2)	14 (23.3)	76 (27.3)	2 (20.0)	
	Total	26 (100.0)	60 (100.0)	278 (100.0)	10 (100.0)	
Biscuits · snack	≥ 4 times	1 (4.2)	2 (3.3)	5 (1.8)	0 (0.0)	5.98
	2 - 3 times	5 (20.8)	15 (25.0)	60 (22.0)	2 (20.0)	
	Once	14 (58.3)	30 (50.0)	129 (47.3)	7 (70.0)	
	Never	4 (16.7)	13 (21.7)	79 (28.9)	1 (10.0)	
	Total	24 (100.0)	60 (100.0)	273 (100.0)	10 (100.0)	
Skewered chicken · fish paste · fried food · hot dog	≥ 4 times	1 (4.0)	4 (7.0)	4 (1.5)	0 (0.0)	23.73**
	2 - 3 times	4 (16.0)	6 (10.5)	46 (16.7)	1 (10.0)	
	Once	8 (2.0)	26 (45.6)	96 (34.8)	3 (30.0)	
	Never	12 (48.0)	21 (36.8)	130 (47.1)	6 (60.0)	
	Total	25 (100.0)	57 (100.0)	276 (100.0)	10 (100.0)	
Bread · cake	≥ 4 times	0 (0.0)	1 (1.7)	3 (1.1)	0 (0.0)	3.41
	2 - 3 times	5 (19.2)	7 (11.9)	43 (15.6)	1 (11.1)	
	Once	7 (26.9)	26 (44.1)	106 (38.4)	4 (44.4)	
	Never	14 (53.9)	25 (42.4)	124 (44.9)	4 (44.4)	
	Total	26 (100.0)	59 (100.0)	276 (100.0)	9 (100.0)	
Ice cream	≥ 4 times	0 (0.0)	1 (1.7)	7 (2.6)	0 (0.0)	5.47
	2 - 3 times	0 (0.0)	8 (13.6)	34 (12.4)	1 (10.0)	
	Once	12 (46.2)	22 (37.3)	107 (39.1)	5 (50.0)	
	Never	14 (53.9)	28 (47.5)	126 (46.0)	4 (40.0)	
	Total	26 (100.0)	59 (100.0)	274 (100.0)	10 (100.0)	
Carbonated drinks	≥ 4 times	0 (0.0)	1 (1.7)	6 (2.2)	0 (0.0)	6.57
	2 - 3 times	3 (12.0)	6 (10.2)	30 (11.0)	0 (0.0)	
	Once	11 (44.0)	17 (28.8)	88 (32.1)	6 (60.0)	
	Never	11 (44.0)	35 (59.3)	150 (54.7)	4 (40.0)	
	Total	25 (100.0)	59 (100.0)	274 (100.0)	10 (100.0)	
Candies	≥ 4 times	0 (0.0)	2 (3.5)	5 (1.8)	0 (0.0)	8.50
	2 - 3 times	5 (20.0)	3 (5.2)	22 (7.9)	2 (20.0)	
	Once	4 (16.0)	15 (26.3)	66 (23.8)	2 (20.0)	
	Never	16 (64.0)	37 (64.9)	184 (66.4)	6 (60.0)	
	Total	25 (100.0)	57 (100.0)	277 (100.0)	10 (100.0)	

1) N (%)

** : $p < 0.01$

Table 6. Children's activity according to maternal parenting attitude

Activity	Overprotective (n = 26)	Authoritarian (n = 60)	Democratic (n = 282)	Neglectful (n = 11)	F
Exercise (times/week)	2.3 ± 1.4 ¹⁾	2.1 ± 1.6	2.5 ± 1.6	1.7 ± 1.3	1.76NS ²⁾
TV watch (hrs/day)	2.4 ± 1.5	2.6 ± 1.5	2.8 ± 1.8	2.8 ± 1.1	0.71NS
Computer use (hrs/day)	1.6 ± 1.2	1.4 ± 1.0	1.4 ± 1.1	1.8 ± 0.9	0.78NS
Reading:study (hrs/day)	1.9 ± 1.4	2.3 ± 1.8	2.3 ± 1.5	2.1 ± 1.3	0.49NS
Sleep (hrs/day)	8.1 ± 2.8	8.0 ± 2.5	8.3 ± 1.8	7.7 ± 2.8	0.50NS

1) Mean ± SD

2) NS; not significant

으며, 어머니가 ‘방임적’ 일 때 아동의 운동 횟수는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 아동들은 하루 평균 2.4~2.8 시간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평균 1.4~1.8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1.9~2.3 시간동안 공부나 독서를 하고 있어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방임적’ 유형인 아동의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시간이 다소 긴 편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아동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71.2%가 민주적, 15.2%가 권위주의적, 7.1%가 방임적, 6.6% 과보호적 양육태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전통적인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서구의 부모와 비교할 때 강요, 통제 및 규제의 특성을 띠는 경향이 있으나(Kim 등 2005), 본 조사대상 아동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체로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아동의 저체중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고, ‘민주적’일 때 25.5%로 가장 낮았다(p < 0.01) (Table 3).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보호하고 의·식·주의 기본적인 지원에 성의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영양부족과 교육적 무관심, 불결한 위생환경, 생존에 필요한 의료적 지지를 하지 않는 양육태도로 정의된다(Nam 2003).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인 경우에 아동의 저체중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의 식생활에 관심과 성의가 적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적’인 양육태도인 어머니는 자녀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애정을 가지고 자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인정해주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저체중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에게 관심이 적은 ‘방임적’ 양육은 아동의 체중부족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는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반면에 본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만 아동의 비율이 유사했다(Table 3). 이는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적이고 엄격할 때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되었다는 다른 나라에서의 조사 결과(Birch & Fisher 1998; Carper 등 2000)와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이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덜 먹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Birch & Fisher 1998; Carper 등 2000; Fisher & Birch 2000),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식품선택에 부정적인 영향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Wake 등(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일 경우 허용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취학 전 자녀의 비만위험이 높았으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비만위험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비만위험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아동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방임하지 않는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긍정적 의미의 지도감독을 통해 자녀의 아침결식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 대해 통제적인 특성을 가진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역시 자녀에게 따르도록 요구함으로써 자녀의 규칙적인 아침식사 습관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만 동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아동의 욕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아동의 아침결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자녀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분명한 이유로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를 절제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인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와 외식횟수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방임적 양육태도일 때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Nam (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라면 섭취빈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일 때 더 높았다.

아동의 간식은 정규 식사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줄 수 있으므로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모하므로 아동의 성장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동이 간식을 분량과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제공받는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 또는 '민주적' 일 때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과보호' 양육태도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그리고 '민주적' 양육태도의 어머니는 합리적으로 아동의 간식을 분량과 시간을 지켜 규칙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 유형일 때 아동의 간식습관이 대체로 불규칙했으므로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간식 식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Nam (2003)의 연구에서도 간식 식습관은 양육행동 특성이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일수록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며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일 때 아동이 불규칙한 간식습관을 나타냈다. 대체로 불규칙한 간식은 아동의 정규식사 섭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 1995). 본 조사에서 아동들이 가장 자주 섭취하는 간식은 과일·과일주스와 분식류(라면, 김밥, 떡볶이) 및 과자·스낵류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간식의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닭꼬치·오뎅·튀김·핫도그의 하루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활동 및 비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들은 대체로 1주일에 평균 1.7~2.5회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다른 연구(Yon 등 2008)와 유사했다. 아동의 활동 및 비활동 시간을 어머니의 양육태도별로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상관없이 아동의 활동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시위주의 사회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보다는 학습활동과 컴퓨터 사용에 할애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활동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agelholm 등(1999)의 조사에서 아동의 활동성 보다 비활동성이 부모의 생활습관과 더 상관관계가 높았으므로, 아동이 비활동적인 경우 부모 자신의 생활습관을 관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식생활에 있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방임하지 않고 자녀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인정해주므로, 아동이 패스트푸드를 적게 섭취하고 아침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아동들은 저체중의 위험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동의 불규칙한 식습관은 저체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활동·비활동 시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활동량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이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일부 초등학교에 국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인 아동들의 식행동 설문에 대한 응답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임적'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일부 자료의 통계처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제한적이었다.

요약 및 결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학년 남·녀 학생 총 396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체질량지수(BMI), 식습관, 생활습관을 조사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고용상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조사대상자의 체중은 저체중이 30.8%, 정상인 48.0%, 과체중이 21.7%이었고, 어머니의 나이 분포는 35~39세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고용상태는 전업주부 34.7%, 전일제 38.3%, 시간제 26.9%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유형 7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유형 15.2%, '방임적' 유형 7.1%, '과보호적' 유형 6.6%의 순서였다.

2. 아동의 체중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사항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나이에 따라 아동의 체중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아동의 '체중과다'가 많았고, 시간제 직업을 가진 경우 '저체중' 비율이 높았다($p < 0.05$).

3.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일 때 67.9%로 가장 높았고 '민주적'일 때 25.5%로 가장 낮았으며($p < 0.01$),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상관없이 유사했다.

4.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

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민주적’일 때 아동이 아침식사 빈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인 아동들의 아침식사 빈도가 다른 양육태도 유형보다 비교적 낮았다($p < 0.05$).

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 및 ‘민주적’ 유형일 때 외식횟수가 낮았으며($p < 0.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 유형일 때 외식횟수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6.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가장 낮았다($p < 0.01$). 이는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태도일 때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를 절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인 경우 아동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와 외식 횟수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였다.

7. 아동이 간식을 분량과 시간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제공 받는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 또는 ‘민주적’ 일 때 비교적 높았다($p < 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방임적’ 유형일 때 아동은 간식섭취가 대체로 불규칙했으므로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간식 식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8. 아동의 활동 및 비활동 시간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상관없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자녀의 식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무조건 방임하지 않고 자녀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인정해주므로, 아동이 패스트푸드를 적게 섭취하고 아침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아동들은 저체중의 위험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인정해주는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규칙적인 식행동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Arredondo EM, Elder JP, Ayala GX, Campbell N, Baquero B, Duerksen S (2006): Is parenting style related to children's healthy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Health Edu Res* 21(6): 862-871

Becker W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L, Hoffman LW,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Vol. 1, NY

Birch LL, Fisher JO (1998): Development of eating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01(3): 539-549

Benton D (2004): Role of parent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food preferences of children and the development of obesity. *Int J Obesity* 28(7): 858-869

Carper JL, Orlet Fisher J, Birch LL (2000): Young girl's emerging dietary restraint and disinhibition are related to parental control in child feeding. *Appetite* 35(2): 121-129

Davison KK, Birch LL (2001): Childhood overweight: a contextual model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Obes Rev* 2(3): 159-171

Dennison BA, Erb TA, Jenkins PL (2002): Television viewing and television in bedroom associated with overweight risk among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Pediatrics* 109(6): 1028-1035

Epstein LH, Wing RR, Valsoki A (1985): Childhood obesity. *Pediatr Clin North Am* 32(2): 363-379

Farooqi IS, O'Rahilly S (2000): Recent advances in the genetics of severe childhood obesity. *Arch Dis Child* 83(1): 31-34

Fisher JO, Birch LL (2000): Parents' restrictive feeding practices are associated with young girls' negative self-evaluation of eating. *J Am Diet Assoc* 100(11): 1341-1346

Fogelholm M, Nuutinen O, Pasanen M, Myöhänen E, Säätelä T. (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of physical activity pattern and obesity. *Int J Obs Relat Metab Disord* 23(12): 1262-1268

Jung WS (1989): *Modern Educational Psychology*. Kyo-yuk Co., Seoul

Kang YJ, Hong CH, Hong YJ (1997): The prevalence of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over the last 18 years in Seoul area. *Korean J Nutr* 30(7): 832-839

Kim EK, Moon HK (2001): A comparison of the past physical growth, eating habits and dietary intake by obesity index of sixth grade primary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J Community Nutr* 6(3S): 475-485

Kim HA, Kim EK (1994):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obesity of children in Kangnung. *Korean J Nutr* 27(5): 460-472

Kim KH (2002): The Effects of Parent's Nutritional Education for Body Weight Control of Obese Children. *Korean J Food Culture* 17(2): 185-196

Kim KR (2000): A study on mother's eating attitude and children's eating habits. MS thesis, Yeungnam University

Kim U, Park Y-S, Kwon Y-E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 Psychol Social Issues* 11(1): 109-142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http://www.cdc.go.kr/kcdchome.portal?_nfpb=true&_pageLabel=HPPHEA070&rootmenuid=20281&targetmenuid=20288&contentid=4182

Laskarzewski P, Morrison JA, Khoury P, Kelly K, Glatfelter L, Larsen R, Glueck CJ (1980): Parent-child nutrient intake relationships in school children aged 6 to 19: The Princeton School District Study. *Am J Clin Nutr* 33(11): 2350-2355

Lee KH, Koh JY (1998): An analysis of the studies about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caring attitude influencing to child development with studies since 1990s. *J Kor Assoc Family Welfare* 3(1): 61-73

Lim JN (2000).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habits & health condition in preschool children. MS thesis, Yeungnam University

- Mo SM (1995):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Hyoil Co., Seoul
- Mo SM, Woo MK (1984): Dietary behaviors of children in daycare center regarding the family and dietary environments. *J Kor Home Econom Assoc* 22(2):51-62
- Nam S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ting Habi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Korean J Food Culture* 18(6): 515-256
- Pérusse L, Tremblay A, Leblanc C, Cloninger CR, Reich T, Rice J, Bouchard C (1988): Familial resemblance in energy intake: contribution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Am J Clin Nutr* 47(4): 629-635
- Schaefer E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 Abnorm Soc Psychol* 59: 226-235
- Son SM, Lee JH (1997): Obesity, Serum Lipid and Related Eating Behaviors of School Children. *Korea J Community Nutr* 2(2): 141-150
- Vauthier J, Lluch A, Lecomte E, Artur Y, Herberth B (1996): Family resemblance in energy and macronutrient intakes: The Stanislas Family Study. *Int J Epidemiol* 25(5): 1030-1037
- Wake M, Nicholson JM, Hardy P, Smith K (2007): Preschooler obesity and parenting styles of mothers and fathers: Australian national population study. *Pediatrics* 120(6): 1520-1527
- Yon MY, Han YH, Hyun TS (2008): Dietary habits, food frequency and dietary attitudes by gender and nutrition knowledge level in upper-grade school children. *Korea J Community Nutr* 13(3): 307-322